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급증
- 다시 뛰는 일본기업, 설비 투자 3년 연속 두 자릿수

## 경영 노트

- 월마트와 까르푸의 실패가 주는 교훈

## 사회 트렌드

- IT세대, 말을 잃어간다
- 21세기 정치는 물이 좌우

## 저널 브리프

- 세계적인 인플레이 공포와 금융시장 전망

## 洗心錄

- 수문맹(數文盲, innumeracy)

## □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급증

- 4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작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 회복세가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됨
  - 산업생산은 자동차, 선박 등의 생산 부진으로, 3월의 0.9%(전월비) 증가세에서 4월에 -1.5%의 감소세로 전환됨
  - 또한 4월 소비재판매액 지수 증가율도 0.1%에 그쳤으며, 특히 내구재 부문이 승용차 소비 감소(전월비 -8.5%)로 -5.8%의 감소세를 기록함
  - 한편 4월 설비투자추계는 전년동월대비 7.3%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전년 동월인 2005년 4월의 부진(0.1%)에 따르는 기술적 반등 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현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 추세를 예고해 주는 경기 선행지수마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최근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 다시 뛰는 일본 기업, 설비투자 3년 연속 두 자릿수

- 2006년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4.5% 가량 증가하여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됨
  -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일본 기업들은 전년에 비해 14.5% 증가한 25조 9,947억 엔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전자,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체들의 증가세(17%)가 전반적인 일본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2000년대 들어 극심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올해도 미흡한 경기 회복세로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력 격차 확대가 우려됨

□ 월마트와 까르푸의 실패가 주는 교훈

■ (배경) 세계적 할인점들이 한국시장에서 연이어 철수하면서 그 실패 배경에 관심이 모임

- 이랜드그룹이 한국까르푸를 인수한 데 이어, 세계 1위 할인점 월마트도 신세계 이마트에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함
- '96년 유통시장 개방후 국내 할인점시장은 이제 국내기업이 장악하게 됨

< M&A 이후 국내 할인점 시장 경쟁 구조 >

	신세계 이마트 (이마트+ 월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국까르푸 (이랜드+ 까르푸)
매출액(억원)	66,127	35,684	29,030	21,679
시장점유율	38%	19%	14%	11%
매장수	95개	42개	45개	47개

■ (원인) ‘자기 방식’만을 고집한 현지화 전략 부재에 기인

① 한국의 소비 문화와 소비자 심리 파악에 실패

- 외국계 할인점은 창고형 매장 시설에 대량 구매에 의한 저가(低價) 전략을 고수했으나, 주고객층인 한국 여성들은 백화점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구매환경을 선호하고 가격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향이 있음
- 또한 가장 중요한 먹거리의 경우 값싼 냉동식품으로 가격경쟁력에만 집중하였으나 신선식품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기호와는 맞지 않음

② 조직 구성, 상거래 관행 등에 있어 현지화 노력에 소극적

- CEO 및 임원은 외국인, 직원은 한국인이라는 기형적 인력 배치로 조직 융화에 실패하였으며, 본사 위주의 경영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됨
- 국내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였으며(한국까르푸는 가장 많은 불공정 거래 지적),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한 점포망으로 인해 할인점 성공의 주요 요인인 접근성에도 한계를 보임

■ (제언)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Glocal, Global Standard+Local Practice)’ 경영 노력이 요구

- 현지 문화와 언어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시장 조사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함

## □ IT세대, 말을 잃어간다

- 정보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문자 대화’가 일반화되면서 IT세대가 말하는 기술을 잃어가는 것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지난달 30일 USA투데이는 미국의 10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메신저(IM)를 사용하는 ‘문자 대화’에 몰두하면서 ‘음성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함
  - 대학생들도 노트북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아 기숙사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할 정도라고 함
- 이 때문에 10대들은 IT에는 능숙하지만 전문적 토론이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신문은 덧붙임
  - 한 조사에 의하면, 기업주 중 34%는 고교졸업자들의 구술 대화 능력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함
  - 이는 IT가 더 보급된 우리 나라에서 더 사회 문제화 될 것으로 여겨짐

## □ 21세기 정치는 물이 좌우

- 21세기는 물이 석유를 대신해 국내 또는 세계정치의 중심 아젠다가 될 것으로 전망됨
  - 美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30일 “석유가 20세기의 자원이라면, 물은 21세기의 자원”이라며 식수 부족이 각국의 정치 상황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함
- 중국은 급격한 도시화가 물 부족의 주범인데, 사람들이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물 소비량은 5배 늘어난다고 함
  - 인도의 경우 강을 공유라는 주(州) 사이에 다툼이 이어지고 물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물 문제는 기반시설 이외에도 통치 방식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게 될 것임
  -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 지역 농민들은 연간 4억 1,600만 달러 상당의 물 보조금을 받는데, 이것이 삭감될 경우 농민들은 생업 유지가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리더십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임
  -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물 부족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땅을 버리고 인구가 밀집한 카라치로 향하고 있음. 결국 물 부족은 농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사회적 격변을 부를 수 있음

□ 세계적인 인플레이 공포와 금융시장 전망\*

- (세계적 인플레이 가능성 고조)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 및 지역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들 국가 및 지역에서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미국)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6월 또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상: 2006년 4월 전월 대비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문가 예상치인 0.5%를 상회하는 0.6%였으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핵심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0.3%로 전문가 예상치 0.2%를 상회함
    - 금리 인상 가능성: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美 퍼스트 트러스트 빌 멀비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FRB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싶지만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같은 FRB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함
  - (EU) 2006년 4월 연간 인플레이율이 물가상승 억제 가이드라인을 돌파함으로써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현상: 지난 4월 연간 인플레이율이 2.4%(2006년 최고 수준)로 이는 유럽 중앙은행의 물가상승 억제 가이드라인인 2%를 뛰어넘는 수준임
    - 전망: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EU 12개국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3%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본과 중국) 최근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투자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 또한 금리 인상이 임박 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제 금융시장 전망)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자산시장의 불안을 통한 세계 최초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음
  - (금리인상에 의한 자산 가격 하락)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달러 약세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각종 자산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자산 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 세계적인 자산 가격 하락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 세계 최초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06.05)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수문맹(數文盲, Innumeracy)

현대인은 숫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생일, 몸무게, 키, 여기에 주민번호가 매겨지고, 선거기간 동안에는 여론조사의 숫자들을 접하게 된다.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이 0과 1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숫자 사회’이고,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은 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미 영국의 비평가 H. G. 웰스는 숫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언젠가는 쓰거나 읽기처럼 유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현대에 있어 문맹이란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두려움을 갖고 손쉽게 다루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다. 미국의 수학자 존 파울로스(John A. Paulos) 교수는 이것을 수문맹(innumeracy)이라고 이름붙였다.**

숫자는 자신의 주장을 좀더 설득력있게 보이게 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유용한 도구이다. 숫자가 가지는 권위 때문이다. 영국 수상을 지낸 디즈레일리는 항상 통계 수치를 인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각종 통계 수치를 조목조목 인용하여 대답함으로써 의원들의 예봉을 잘 피해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대답할 때마다 그는 항상 메모지를 보면서 각종 통계 수치들을 인용했다. 디즈레일리 수상이 국회에서 답변하던 어느 날, 수상은 그 날도 그의 특기를 살려서 숫자가 포함된 조리 있는 대답으로 의원들을 압도했다. 그런데 수상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실수를 하여 그만 메모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수상의 통계 수치 인용에 대하여 평소에 감탄해 하던 한 호기심 많은 의원이 그것을 주웠다. 그러나 메모지를 본 의원은 깜짝 놀랐다. 수상이 열심히 들여다보며 참고한 메모지는 숫자 하나 적혀 있지 않은 백지였던 것이다. 숫자의 위력을 보여주는 예이다.

**“사색이 없는 독서는 사람을 우둔하게 만든다.  
독서가 없는 사색은 사람을 방황하게 한다.”**

- 베르나르 폰 클레르보(1090~1153) 프랑스의 수도사, 신비주의자